

제 9회 동주문학상에 원도이 시인

광주일보·계간 '시산맥' 공동 주관

수상작 '토마토 파르티잔' 등 5편 해외작가상, 서연우·윤희경 시인 해외작가특별상, 김오 시인

30일 천도교 중앙대교당서 시상식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9회 동주문학상 수상자로 원도이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토마토 파르티잔' 등 5편이며 상금은 1000만 원.

운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긴 시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제정된 동주문학상은 지난 2019년 운동주서시문학상에서 동주문학상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집 공모로 응모를 받았다. 총 150여 명이 응모한 이번 공모에는 35명 작품집이 예심을 통과해 4명의 후보 작품이 최종 본심에 올랐다.

심사를 맡은 장석주, 송재학, 김이듬 시인은 수상작에 대하여 "들쭉날쭉하지 않은 시적 성취에 이른 점, 낯익은 사물을 낯설게 인지하는 가운데 의미의 장력을 매우 능숙하게 만드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원도 횡성 출생의 원도이 시인은 2019년 '시인동네'로 등단했으며 2020년 시집 '비로소 내가 팔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를 펴냈으며 2024년 문화예술위 창작지원금을 수혜받았다. 또한 올해 제2회 경북문예현상공모 대상을 수상했다.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인 동주해외작가상(상금 200만원)은 미국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연우 시인과 호주 시드니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희경 시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각각 '재단사' 등 5편, '고흐의 색' 등 5편으로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들은 서연우 시인 작품에 대해 "한 별의 웃을 짓는 직렬의 서사이다. 시 속에는 만연체와 쓸쓸함과 화려함이 서로 맞물리면서 촘촘하게 직조돼 있다"고 평했다.

또한 윤희경 시인 작품에 대해 "고흐의 색"은 탐미주의자 고흐를 호명해 여름 저녁 하늘의 색채와 오버랩시킨 전략이 유효하다"고 평했다.

서연우 시인은 대구 출생으로 2014년 '미주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빛소리가 길고 양이처럼 지나간다'를 발간했다. 현재 미주문학 이사로 뉴미디어 분과장을 맡고 있다.

윤희경 시인은 2015년 계간 '미네르바'로 등단해 시집 '대티를 솔티라고 불렀다' 등을 펴냈다. 2022년 재외동포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문학

과시드니'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 거주하는 시인으로 운동주 시인의 민중애를 시로 구현하는 활동을 펼치는 시인에게 주어지는 동주해외작가특별상(상금 100만원)은 김오 시인이 선정됐다.

김오 시인은 경기도 동두천 출생으로 1987년 9월 시드니로 이주했다. 1993년 '호주동아일보' 신년문예에 시로 당선했으며 시집 '깡겨루의 집' 등을 발간했다.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신인들의 활동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제정된 동주해외신인상은 '가을을 줘다가 당신을 만났다' 등 10편을 응모한 김수수 시인이 뽑혔다. 김수수 시인은 제19회, 24회 재외동포문학상을 받았으며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제19회 최치원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이형욱 시인에 대한 계간 '시산맥' 등단패 수여도 함께 진행된다.

문정영 '시산맥' 대표는 "올해로 제9회를 맞은 동주문학상은 운동주 시인의 시 정신을 잇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며 "해마다 많은 작품집이 응모돼 문학상의 의미와 가치를 새삼 숙고하게 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좋은 시는 좋은 그릇에 담긴다는 원칙으로 쌓아둔 초고·시편들 차분히 다듬어 볼 것

해외작가상 공동 수상 윤희경 시인



"축하한다"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보듯,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인사를 받는 순간 이마에 땀이 맺혔다. 황조롱이가 오랜만에 곁으로 날아들었다. 매 발톱의 힘이 조금 남아 있었다 보다."

동주해외작가상을 공동 수상한 윤희경 시인은 운동주 문학 세계를 고심하며 연도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윤희 시인은 지난 1996년 이민생활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을 데리고 왔는데 호주 정착민 생활은 예상했던 대로 정신없이 분주한 나날들이었다. 그는 "주말이면 한국음식과 생필품을 사러 20분 정도 걸리는 교민마켓이 있는 곳까지 운전해 다녀오곤 했다"며 "교민작가들의 수필이나 짧은 시 한 편이라도 발견하면 그 읽는 기쁨은 배가 됐다"고 했다.

윤희 시인은 2020년대 들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단절이 오히려 한국과 소통하는 시대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돌아보니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시를 만날

때가 있다. 슬그머니 줍고 싶을 때가 있다"며 "그러나 무모하게 좋은 시를 쓰려면 무조건 레슬링과 같은 몸 쓰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좋은 시는 좋은 그릇에 담긴다는 원칙과 중심을 그때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윤희 시인은 자신은 시도 사람도 합부로 '배어 내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다고 했다. 버려려다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남은 초고를 가끔 들춰볼 때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왔다.

"시드니 연말은 뜨겁다. 한국의 7, 8월과도 같아 대부분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고, 1월 한 달은 관광객을 포함한 온통 축제와 행사가 이어진다. 올해는 한국의 동지선달을 생각하면서 옹크리고 앉아 시편들을 차분히 다듬어볼까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끊임없는 혼돈과 도전을 지나온 이민의 삶 나의 모국어는 창백했고 시를 쓰기 시작했다

해외작가상 공동 수상 서연우 시인



"나는 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떠나왔을까? 아직도 수취인불명으로 되돌아오면 다시 보내는 물음이다. 끊임없는 혼돈과 도전을 지나온 이민의 삶에서 나의 모국어는 창백했다.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영화 '시'와 '동주'를 보고 난 후 잠 못 이루던 날과 무관하지 않다."

동주해외작가상을 공동 수상한 서연우 시인은 응모작들을 보내려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send를 누르던 그 순간은 이제 지워지지 않을 꿈이 되었다고 했다. 너무나 먼 곳에서 빛과 있어 닿을 수 없을 것만 같던 운동주 시인의 이름으로 수상을 한다는 것이 벅차고 기뻛다는 것이다.

그는 "운동주 시인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조국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하나씩 떠올려 봤다"며 "부끄러운 시를 쓰지 않으려 높고 맑은 영혼을 닦아왔다고 되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쁜 이민 생활 중에서 좋은 작품을 쓰게 된다면 운동주 시인의 이름을 내건 상을 받고 싶었다"며 "그런 포부가 현실이 돼 말할 수 없이 감격

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연우 시인은 이국 땅에서 호흡하는 멜랑콜리한 감성들을 퇴색해가는 기억에 오버랩 기쁨으로 시화하는 작업을 익혀왔다. 더불어 많은 교포들이 사는 도시 LA에 거주하기에 많은 문학단체 문우들과의 교류를 통해 영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영미 시와 외국의 독립영화들에 흥미를 갖고 많이 접하려 한다"며 "더 없이 큰 세계 안에 숨어 반짝이는 바늘같은 의미를 찾아내 그것을 표현해내려 애쓴다"고 덧붙였다.

그는 "씨든 시들로 두번째 시집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시인 만세' 시낭송 회원 활동과 '미주 문협'과 '재미 시협'의 시영상홍보 팀에서 시 낭송을 하고 있다. 앞으로 실력을 연마해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싶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세상과 함께 언제나 새로운 하루를 시로 열어가며 살고 싶어"

동주문학상 원도이 시인

제9회 동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원도이 시인은 "운동주 시인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할 때 나이가 27세였다"며 "나는 그나이즘 무엇을 하고 무슨 고민을 했는가, 시인 운동주의 고통과 빼어난 서정을 나는 과연 얼마큼 헤아릴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도이 시인 인터뷰.

-동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감은.

▲ 수상 소식을 듣고 운동주의 이름이 걸린 영광스러운 상을 과연 제가 받아도 되는지, 밤새 제 시를 다시 읽어보았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세상과 함께 언제나 새로운 하루를 시로 열어가며 살겠다는, 그리고 동주문학상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 시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평소 운동주 시인에 대한 생각은.

▲ 절망적인 시대의 한복판에서도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고뇌한 시인의 내면과 슬픔에 대해 생각하면서 현재 제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 사회,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돌아보곤 한다. 전후 세대로 안온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온 저를 돌아보며 제 시야말로 너무 쉽게 쓴 시가 아닌가 반추하곤 한다.

-시 창작을 위해 어떻게 공부했나.

▲ 국어교사로 34년 재직하며 시와 문학을 가르쳤다. 저와 학생들이 함께 시를 외우곤 했는데, 그 시 구절들이 늘 저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무엇이 내면에 차오르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말하고 싶은 무엇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 은유와 상상력에 몰입하는 시 작업의 과정은 심리적인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는 저에게 삶의 위로자이며 동행자였다.

-시 창작 외에 어떤 활동을 했나.

▲ 2014년부터 학습동아리(오리인문학당)를 만들어 월 3회 동아고전을 공부하고 있다. 노자



'도덕경'으로 시작해 '논어', '대학', '중용', 그리고 '장자'의 원문을 하나씩 짚어가며 공부한다. 그렇다고 공부한 내용을 잘 안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향후 계획은.

▲ 시를 쓰는 일은 존재의 근원에 대해 질문하는 일이다. '우리는 끝없이 존재에 관해 질문을 던지지만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거나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채 질문하다가 사라진다'고 파블로 네루다는 말했다. 질문과 호기심이 사라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없겠는가? 존재에 관한 질문과 그에 관해 상상하는 일은 시인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며 시인의 임무이기도 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정록 작가 사진 작품,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이탈리아판 표지로

이정록 작가의 사진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이탈리아판 표지에 사용돼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이 작가에 따르면 "최근 런던의 갤러리 가운데 소통하는 마더 갤러리가 있는데 이곳으로부터 이탈리아 출판사에서 '사적성소'(Private sacred place-p#3-1) 작품을 표지로 사용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눈의 끝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으면 현재 출판사 홈페이지에는 책이 출간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이 작가가 15년 전 '사적성소'라는 시리즈 작업을 할 때 제작했다. 일반적으로 성소는 교회나 절 등 공회당을 말하는데, 이 작가의 성소는 자연풍경과 작품을 결합해 만든 것을 말한다.

작품은 나주 호의 섬과 영무새가 모티브가 됐다. 그는 "물에 떠 있는 섬이 아닌 허공에 떠 있는 섬을 만들고 싶었다"며 "당시 작업실에서 기



이정록 작 '사적성소'

르던 왕관 영무새를 봉 위로 올라가게 한 뒤 촬영을 하고, 그 장면을 섬 사진 위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는 작품 속 인물이 죽을 위기에 처한 친구의 영무새를 찾으러 제주도에서 간다는 내용이 있다"며 "아마 그러한 내용과 제 사진 작품이 어떤 유사점이 있는 것 아닌가 유추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이탈리아판 표지

지난해 프랑스메디치 외국문학상에 선정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꿈처럼 스며오는 지극한 사랑의 기억'을 다룬 소설이다. 작가는 제주 4·3의 상흔을 시적인 문체로 다루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 작가는 "이탈리아 출판사가 어떻게 알고 갤러리로 연락을 했는지 신기하다"며 "경기도 어렵고 시국도 뒤숭숭한데 자랑스러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님의 작품에 함께 한다는 소식이 위안이 되는 하루"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소속 청소년 동아리 '잘라펼쳐' '2024 청소년 생태전환 사회참여대회' 광주시 교육감상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센터장 박형주·삶디자인센터) 소속 청소년 동아리 '잘라펼쳐'가 지난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청소년 생태전환 사회참여대회'에서 광주시 교육감상(우수상·지속가능성 선도상)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주관하는 '청소년 생태전환 사회참여대

회'는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생태전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회다. 총 5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유일하게 고등부에서 잘라펼쳐가 수상했다. 문정여교 김도연(여·17), 광주전자공고 조민우, 정보석, 조정현(18) 학생으로 구성된 '잘라펼쳐'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종이팩을 수거해 자원순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캘린지를 제안

했다. 이들은 삶디자인센터 '보자기장' 행사 등에서 3차례 부스를 오픈, 시민들에게 분리배출방법 등을 알렸으며 올해 3월부터 '일주일 캘린저'를 기획, 종이팩 배출 습관의 사용 빈도수를 파악하는 방법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잘라펼쳐 김도연(17·문정여교) 학생은 "자원순환을 위해 종이팩을 수거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작은 행동일지 모르나, 사회 전체가 참여한다면 큰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며 "이번 수상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이 종이팩 분리배출과 환경순환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유프클래식이 지난해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선보인 '모차르트의 편지' 공연 장면. <유프클래식 제공>

2021년 창단한 유프클래식(대표 장마리아)은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성 음악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마치 '울'을 띄우듯 아름다운 음악을 꽃피운다는 목표를 내걸고 지역민을 만나 왔다.

유프클래식이 제4회 정기연주회 'My Favorite Song'을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펼친다. 프란츠 리스트, 랜던 로날드, 벤자민 브리튼 등 19~20세기 활약했던 클래식 음악가의 예술가곡을 감상하는 자리다.

먼저 소프라노 김수민은 리스트 '빅토르 위고 시에 의한 4개의 노래'를 들려준다. 위고의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곡집에 실린 작품들로 '매혹적인 풀밭이 있다면', '오! 내가 꿈을 꾸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약 왕이라면'으로 이뤄졌다.

이어지는 랜던 로날드의 '인생의 순환'은 '사

랑'이라는 소주제를 다섯 편(전주곡 포함)의 노래에 담아낸 연가곡이다. 사계절의 정취를 표현하는 '술속 깊은 곳에서', '내 사랑, 내가 원했던 그대', '바람이 부르네', '눈이 내리네'를 메조소프라노 임지현 부를 예정이다.

이외 소프라노 장마리아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알렉산더 첼린스키의 '여섯 개의 왈츠 노래'를, 소프라노 장희정은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섬 위에서'를 선사한다.

유프클래식 장마리아 대표는 "시를 원 텍스트 삼아 만들어진 '예술 가곡'들이 관객들에게 문학적 감수성과 음악적 정취를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연이 '클래식 음악이란 지루하다'는 편견을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